

# 전북 제조업 체감경기 '깁충'... 비제조업은 부진

### 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98.3... 전월보다 6.1포인트 상승

2026년 2월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신규수주, 자금사정이 동시에 나아지면서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소폭 하락하며 업종 간 온도차를 보였다.

전북지역 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3으로 전월(92.2)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전망지수 역시 98.1로, 전월 조사치보다 7.4포인트 오르며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 이는 전국 제조업(CBSI(97.1))가 0.4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 흐름이다. 상승을 이끈 요인은 자금사정(+2.6p), 신규수주(+1.7p), 업황(+1.3p), 생산(+0.9p)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

여건과 수주 개선이 체감경기를 끌어 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회복 흐름이 확인됐다. 2월 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고, 생산은 79로 5포인트, 매출은 73으로 7포인트, 신규수주는 78로 9포인트 각각 올랐다. 3월 전망치 역시 대부분 상승해 회복 기대가 이어졌다.

특히 채산성 BSI는 83으로 한 달 새 17포인트 급등했다. 제품판매가격 상승과 매출 회복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사정 BSI도 82로 8포인트 상승했다. 설비투자 실행 BSI 역시 97로 7포인트 오르며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가장 큰 경영 애로요인은 여전히 내수부진(30.8%)이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5.7%), 인력난·인건비 상승(10.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월 대비 내수부진 비중은 2.0%포인트 하락한 반면, 수출 부진(+2.2%p)과 자금부족(+1.5%p) 비중은 상승해 대외 여건 부담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77.9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업황(-0.8p), 채산성(-0.8p), 자금사정(-0.4p)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비제조업 CBSI(92.2)가 소폭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진

한 흐름이다. 다만 3월 전망지수는 79.8로 3.5포인트 상승해 향후 개선 기대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51로 2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은 60로 3포인트 상승했다. 채산성은 59로 2포인트, 자금사정은 58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과 자금 여건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종합하면 2월 전북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생산·수주·채산성이 동반 개선되며 투자심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공통된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어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향후 내수 개선과 수출 여건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 기자

##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 "만족"

### 농식품부, 6000가구 대상 방문 면접 방식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 10곳 중 7곳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귀농 유형은 농촌 출신이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유(U)형'이 73.0%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48.7%로 우위를 차지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33.3%), 기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귀농 이유로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았고, 기업승계(26.1%)가 뒤를 이었다. 최근 7년간 청년층 귀농 사유 중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응답 비중은 50~60%대를 유지해, 청년층이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측면에서는 귀농·귀촌 5년 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각각 3,300만 원, 4,2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귀농 첫해(2,534만 원)와 비교하면 30.2% 증가했고, 귀촌도 9.4% 늘었다. 다만 귀농 5년 차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농가 소득(5,060만 원)의 65.2% 수준에 머물렀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27.4개월, 발전 가능성(13.5%)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은 15.5개월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율은 높았다. /오상근 기자

## 기관 인프라 연계로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 제5회 전북 바이오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바이오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제5회 전북 바이오포럼'이 지난 25일 국가특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생명특산산업국과 미래첨단산업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관 간 정보 교류와 융복합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포럼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 네트워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연구원개발특구본부 △농축산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바이오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제5회 전북 바이오포럼'이 지난 25일 국가특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에서 열렸다.

영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국가 특성·안전성 평가

역량을 기반으로 화학·바이오 물질용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국가 특성·안전성 평가

초 특성 연구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GLP 독성시험과 보고서 발행, K-REACH 및 EU-REACH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장류·미니픽 등 중·대동물 기반 비임상 연구, 국내 유일 영장류 전용 흡입 노출 시스템, CT·MRI 등 이미징 장비를 갖춘 분석 인프라를 통해 안전성 검증부터 제품 고도화, 인허가 대응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토론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안전성·독성 평가를 중심으로 기업 상에서 시험·평가, 상용화, 인허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공동 과제 발굴을 통해 전북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 우리금융 전북 금융인프라 구축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이 우리금융그룹의 전북 금융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우리금융이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은행·보험 등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을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중심지구 구축 계획을 밝힌 데 이은 세 번째 금융지주사의 전주 진출 사례다. 이에 따라 전북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전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금융 그룹은 앞으로 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신설하고 마케팅 등 인력을 추가 채용해 근무 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에 발굴·육성하고, 기부물품 판매 사업장 추가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개발공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방안 모색

전북개발공사가 2026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4일 김대근 사장 주관으로 청렴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과 20

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요 전략은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강화 △부패 취약요인 발굴·관리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내재화 △청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강화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 부서장이 참석해 각 전략별 개선 대책과 실천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부서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111억원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1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26일 전주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을 위해 4억 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11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업체다. 업체당 최대 1억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